

## 그의 법도를 아는 자 (시편 147:1-20)

▶ 그의 법도를 아는 자, 이것은 즉,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아는 자를 말한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날이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그 중에 오늘은 적어도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누겠다. 인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원칙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개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때로는 아주 처절하게 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없는 개인, 사상, 국가 시대는 전부 다 망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사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휩쓸고 함께 지옥에 갔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이다. 이 사상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 시켜버리는 사상이다.

▶ 개인적으로도 자기 사상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점잔하게 대응했지만 시대적인 영향을 입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도 있다. 바로 니체이다. 정신병으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지금은 지옥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 플로이드는 정신 분석가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 조금 달랐다. 사람의 정신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니체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플로이드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의 이론은 지금도 인간 교육 저변에 깊이 깔려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론이 어떻게 교육의 밑바탕까지 깔리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만들어낸 단어 중에 무의식같은 단어는 전 세계 석학을 흔들어놓았을 정도이다.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고차원적으로 계속 분리시키고 있다.

▶ 세계 역사와 나라, 민족의 흥망을 보면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사상, 국가, 시대 안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 없으면 비참하게 된다. 성경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같은 나라들은 세계 역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나라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했고 그 나라들은 전부 선지자들의 입에 고백 되어진 데로 성취되었다.

▶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을 해석해놓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법도이다. 인간은 아무 힘이 없다. 살아 있을 때에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알게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여기서는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때 우리가 잡고 빠져나올 언약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없으면 처절하게 우는 것이다.

▶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법도를 알아야 한다! 너의 인생 중에는 내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것이다. 이 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인생에 축복으로 나타난다. 때론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 이 아니다. 이 법도와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내가 헌신 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조금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누리면서 감사할 뿐, 한량없는 은혜이다. 값을 길이 없다.

▶ 어떤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언더우드 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가게 되었다. 남편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것이다. 어느 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공부를 신학으로 바꾸어서 아프리카를 간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준비도 안 되어있는데?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 알프스라고 하더라. 초등학교 아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가면서 알프스 간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도 알더라. 아프리카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더라. 동양인인데 보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말라서 빼빼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목사님이었다. 사모님이 완전히 속으신 것이다. 하도 안 간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 날부터 창고 같은 집에서 살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다. 너무 가난하니깐. 아이는 계속 배고프다고 하고, 정말이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래서 목사님에게 늘 이야기를 했단다. 나는 한국에 가겠다! 하나님이 당신은 불렀을지 몰라도 나는 안 불렀으니 간다. 이러는 중에 사모님과 아들 둘 다 목사님과 같이 까맣고 마른 상태가 되어 결국 병까지 들어버렸다. 황달에 말라리아였다.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역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더라. 그래서 이제 힘도 없고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웠단다. 밤이 되었는데 누워서 기도를 한 것이다.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밤새도록 난리가 났다. 왜 날 여기로 보내셨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다.”** 이 말을 듣는데 사모님의 눈에 폭포수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버렸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걸 왜? 저건 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하고 나오셔서 사모님을 보시고 흔들어 깨우셨다. 사모님께서 깨어나서는 목사님께 여기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며 목사님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 날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병이 싹 나아서 강기 하나 안 걸릴 만큼 건강도 회복 되었다. 지금은 교회가 400개이고 보안도 만들고 학교도 지어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이다.

▶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살아있고 그는 분명히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오늘도 이야기 했다. 모든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대로 부르셨다. 그 법도를 따르면 된다.

### 1. 그의 법도를 아는 자

▶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쉽다. 그렇게만 살면 끝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시편 147: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도**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원칙이고

거기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아주 절대적인 길이다. 절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런 “길”이다. 아무도 절대 막지 못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구별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이다.

**시편 147: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대한 비밀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귀중한 비밀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답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답은 아무도 못 믿는다. 이것은 정말로 전능한 것이다. 하나하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정말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딱 이것 하나뿐이다. 그것이면 끝난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답을 모른다. 이 것 없으면 없는 걸로 인해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다. 참된 평안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안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 체험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옥이 그렇게도 두렵다고 한다. 표현이 안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비밀이다.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도 누구든지 다 죽는다. 적어도 이 준비가 확실히 되어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되어있는 자는 땅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정리할 수 있다.

▶ 하나님은 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 여기에 답 나면 미래 뿐 아니라 오늘에도, 과거에도 답이 난다. 과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는가?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잘 못된다.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상처”라고 한다. 그러나 미래의 그 답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고백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겠냐고 했다. 뭔가 확실히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망의 늪,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런 답이 잘 안 난다. 이 답이 만약 난다면 오직 예수 할 수 있다. 삶에 원칙이 있는가? 무슨 원칙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많은 원칙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중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 다들 원칙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원칙 안에 꼭 들어있어야 한다.

▶ 십계명은 많은 율례와 규례에 대해 요약해 해놓은 계명이다. 첫 번째로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다.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다. 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두지 마!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얕신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기념해라.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하루를 구별하라. 그 증거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1-4계명이다.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이 10가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할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 너는 나를 위해 하루를 구별해라. 너의 인생 중에 나를 업신여기어서는 안된다!”

▶ 그리고 5계명부터 사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라. 너도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지 법도를 증거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께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단다.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라던가 하는 부분들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때 자기 아들보다 밥을 더 많이 퍼주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다. 자동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는 네 자식이 그렇게 귀하나? 나는 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한데 너는 네 자식이 그리 귀하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져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기도를 드렸단다. 그 아이들이 전부 지옥으로 끌려갈 때 너는 네 자식만 챙긴다고 하니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광장히 강조하는 교회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가장 근본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나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사단은 광장히 싫어한다.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인생에 변화 일어난다. 그러고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꼭 저를 찾아와 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변화를 보게 된다. 어떤 때는 한 참 지난 후에 보게 된다.

우리가 이 법도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내 성격이 본래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등등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유는 영적인 것이다. 사단이 막거나 사단에게 속았다. 속아서 내 생각이 거기서 탈피를 못한다. 이 모든 걸 정복하고 정리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하나하나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이다. 자꾸 눈이 열려간다. 자꾸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더 역사하실 것이다.

**시편 147:2-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 해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셨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가라 수록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있다. 정말로 이 은혜가 넘쳐서 내가 무엇을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량 없는 은혜고 진짜 값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은혜가 아닌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값을까? 이렇게 된다.

**시편 147:13-14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셨다. 분명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 누리면! 틀림 없다.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다. 이게 그리스도이고 가장 근본이시다.

**시편 147:9- 10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론**

인간에겐 누구든지 이 법도가 있어야 한다. 내 인생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한다. 아니면 사단에게 당하고 만다. 가장 근본 법도 안으로 오늘도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근본 법도는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법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 올해는 구체적인 법도까지 지킴으로 더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역사하신다!